**2020년 수입 승용차 274,859대 신규등록**

[2021. 1. 6] 한국수입자동차협회(KAIDA)는 2020년 12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대수가 11월 27,436대 보다 14.5% 증가, 2019년 12월 30,072대 보다 4.5% 증가한 31,419대로 집계됐으며 2020년 12월까지 연간 누적대수 274,859대는 2019년 연간 244,780대 보다 12.3% 증가했다고 발표했다.

2020년 연간 브랜드별 등록대수는 메르세데스-벤츠(Mercedes-Benz) 76,879대, 비엠더블유(BMW) 58,393대, 아우디(Audi) 25,513대, 폭스바겐(Volkswagen) 17,615대, 볼보(Volvo) 12,798대, 쉐보레(Chevrolet) 12,455대, 미니(MINI) 11,245대, 렉서스(Lexus) 8,911대, 지프(Jeep) 8,753대, 포르쉐(Porsche) 7,779대, 포드(Ford) 7,069대, 토요타(Toyota) 6,154대, 랜드로버(Land Rover) 4,801대, 링컨(Lincoln) 3,378대, 혼다(Honda) 3,056대, 푸조(Peugeot) 2,611대, 닛산(Nissan) 1,865대, 캐딜락(Cadillac) 1,499대, 마세라티(Maserati) 932대, 시트로엥(Citroen) 930대, 재규어(Jaguar) 875대, 인피니티(Infiniti) 578대, 람보르기니(Lamborghini) 303대, 벤틀리(Bentley) 296대, 롤스로이스(Rolls-Royce) 171대였다.

연간 배기량별 등록대수는 2,000cc 미만 181,062대(65.9%), 2,000cc~3,000cc 미만 68,826대(25.0%), 3,000cc~4,000cc 미만 19,023대(6.9%), 4,000cc 이상 2,591대(0.9%), 기타(전기차) 3,357대(1.2%)로 나타났다. 연간 국가별로는 유럽 221,141대(80.5%), 미국 33,154대(12.1%), 일본 20,564대(7.5%) 순이었고 연료별로는 가솔린 149,006대(54.2%), 디젤 76,041대(27.7%), 하이브리드 46,455대(16.9%), 전기 3,357대(1.2%) 순이었다.

2020년 구매유형별로는 274,859대 중 개인구매가 175,681대로 63.9%, 법인구매가 99,178대로 36.1%였다. 개인구매의 지역별 등록은 경기 54,393대(31.0%), 서울 40,749대(23.2%), 부산 10,621대(6.0%) 순이었고 법인구매의 지역별 등록은 인천 36,547대(36.8%), 부산 20,861대(21.0%), 대구 15,410대(15.5%) 순으로 집계됐다.

2020년 베스트셀링 모델은 메르세데스-벤츠 E 250(10,321대), 폭스바겐 Tiguan 2.0 TDI(8,631대), 메르세데스-벤츠 E 300 4MATIC(7,835대) 순이었다.

한국수입자동차협회(KAIDA) 임한규 부회장은 “2020년 수입 승용차 시장은 다양한 신차효과와 물량확보 및 개별소비세인하 효과 등으로 2019년 대비 증가했다”라고 설명했다.

#####

자료문의:

한국수입자동차협회(KAIDA) 박은석 이사(02-518-8046, espark@kaida.co.kr)